

## 충남 이어 대구경북 방문

### 이명박, 내달 2일까지 산업비전탐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산업비전 탐사의 일환으로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충남 탕정의 LCD 단지를 방문에 이어 김천과 대구를 방문한다.

이전시장은 서울시장 퇴임 이후 대덕연구단지과 오창 과학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구미, 대구, 부산, 안산, 창원, 울산 등 국내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황파악과 기업인, 근로자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산업비전탐사 일정은 2007년도 계속되며, 지난해 12월 31일 명절 연휴를 잇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안산 서울반도체를 비롯, 지난 19일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고 있는 조선산업, 우주항공산업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전시장은 산업비전탐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비전을 세우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전시장은 윤봉길 의거 75주년을 맞아 열리는 윤봉길의사 기념단체 신년교례회에도 참석, 매현사랑회, 사단법인 월진회, 매현민족대학졸업생 등과 함께 총의사도 참배할 계획이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내달 1일부터 1박 2일 간 김천과 대구를 방문한다.

이 전 시장의 김천 방문은 임인배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직지사 방문에 이어 당원협의회 교육에 참석해 특강을 한다.

이 전 시장은 저녁에는 대구로 이동해 당 출신 대구시의원, 부위원장단 등 대구시당 당직자 40여명과 모임을 가진데 이어 2일 오전 대구여성경제인연합회 조찬 모임에 참석, 특강을 한다. 김좌열기자

joayul@kyongbuk.co.kr